

# 李白과 杜甫의 詩歌上的 交際에 대한 考察

郭 利 夫\*

## 目 次

- I. 序 論
- II. 李白의 杜甫에 대한 詩 四首
- III. 杜甫의 李白에 대한 詩 十五首
- IV. 結 論

## I. 序 論

李白(701~762年)과 杜甫(712~770年)는 盛唐期 뿐만아니라, 中國文學史上 詩壇의 巨匠이니, 李白을 詩仙, 杜甫를 詩聖이라하여 「李·杜」라고 並稱해서 부른다.

이들의 詩는 일찍부터 漢字文化圈에 屬해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紹介되었고, 文化遺産의 커다란 한 즐거움을 이루고 있는 漢文文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된다.

먼저 杜甫의 詩에 대하여 본다면 우리의 한글 創制期에 訓民正音의 實用性을 살리기 위한 試圖들 중의 하나로써, 杜甫의 詩를 번역한 「杜甫諺解」를 펴낸 바 있다. 當時 같은 目的으로 편찬된 「龍飛御天歌」 등의 一聯의 作風들의 性格에 비추어 볼 때, 朝鮮王朝의 支配階級이었던 士大夫(儒子)들이 杜詩를 매우 尊重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事實상 杜甫는 儒家의 典型 詩人으로서 尊崇되어 왔던 것이다.

李白的 경우를 보면 「將進酒」, 「清平調詞」 등의 특히 浪漫的인 詩가 널리 애송되어 「一杯一杯復一杯」, 「白髮三千丈」과 같은 風流와 誇張의 詩句들이 熟語化되어 쓰일만큼 많은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公的인 尊崇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李太白이 놀던 달」이라는 童謠는 익히 들어왔다.<sup>1)</sup>

흔히 李白과 杜甫를 家世, 思想性, 作風 등을 통한 比較 우위론에 대해서,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韓愈(退之)는 다음과 같은 詩를 썼다.

### 調 張 籍

李杜文章在  
光焰萬丈長  
不知群兒愚  
那用故謗傷  
蚍蜉撼大樹  
可笑不自量  
伊我生其後  
舉頸遙相望

李·杜의 文學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 불길은 萬丈의 높이까지 치달아 꺼지지 않는다.  
우매한 무리들이 자신을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흠을 잡으려 하는가.  
개미가 큰 나무를 흔들지 못해 원망하여 탓 함이니  
그 분수를 몰라 함을 비웃어야만 하리라.  
당신이나 저는 다 늦게 태어났으니  
고개 들어 모두 사모해 우러러 봐야겠지요.  
(韓昌黎詩集·五古, 後三十二句 省畧)

이 詩에서 그는 李·杜 兩人을 比較하는 자체가 無意味하다고 喝破했다.

\* 人文大學

1) 李錫浩, (1981) 李太白과 道敎, 서울, 集文堂, p. 1.

本稿에서는 李白과 杜甫가 東都인 洛陽에서 會同하여, 그들이 직접 交遊한 期間은 1年쯤의 短期間에 불과하지만<sup>2)</sup> 그들의 交遊期의 시와 이별후에 서로 戀戀하는 作品(19首의 詩)의 內容을 서술적으로 分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II. 李白의 杜甫에 대한 詩 四首

1. 沙丘城下寄杜甫.
2. 秋日魯郡堯祠亭上宴別杜甫闕范侍御.
3. 魯郡東石門送杜二甫.
4. 戲贈杜甫.

李白과 杜甫가 最初로 만난 것은 學說이 紛紛하지만, 一般的으로 天寶 三年(744年)의 暮春과 孟夏의 어간 頃이라는 것이 定說이며,<sup>3)</sup> 東都인 洛陽에서였다.

李白은 約 十七年間 放浪生活 끝에 都邑인 長安에 올라가 玄宗皇帝의 翰林供奉 生活을 대략 2年 정도하고, 自意半 他意半 宮中에서 放逐된 직후이니, 그의 나이 44세, 杜甫는 33세 때였다.

李白이 勿論 '賜金還山'이 되어서 布衣에 불과했지만, 地方 官吏나 一般士人들에게는, 그의 名望을 우러러 보고 빚고자 하는 後光의 一面은 있었겠다.

故로 洛陽의 人士들이 李白을 招請한 宴會席上에서, 처음으로 杜甫를 對面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으며, 一旦 相面한 後에는 서로 옛친구가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意氣投合하게 되었다. 兩人은 함께 梁園地方으로 旅行하였으며, 때마침 이 근처를 또한 放浪하고 있었던 遊俠派의 詩人 高適과 만나게 되었으며, 세 사람이 一行이 되었다. 그들은 그 地方의 名勝地를 두루 돌아다녔고 높은 樓臺에 올라 眺望, 慷慨, 懷古하였다. 또한 그들은 狩獵을 했으며, 飲酒 歌吟하며 雄志와 憂愁를 잠시나마 잊으려 했다. 高適은 뒷날 즐거웠던 나날들에 대한 詩를 썼다..<sup>4)</sup>

그러면 李白의 杜甫에 대한 四首의 詩를 보겠다.

### 1. 沙丘城下寄杜甫

我來竟何事	나는 드디어 이 곳에 와 있는데 무슨 일인지
高臥沙丘城	沙丘城 기슭에 다만 누워 있을 뿐이다.
城邊有古樹	그 부근에는 오래 묵은 나무들이 있어서
日夕連秋聲	밤낮없이 가을 소리 연이어 나니 쓸쓸해진다.
魯酒不可醉	魯의 술은 얼마나 마셔야 취할 것인지
齊歌空復情	齊의 노래는 별 이유없이 깊은 정이 있네
思君若汶水	그대를 그리워 함은 汶水의 물 흐름처럼 끝이 없고
浩蕩寄南征	더 남으로 떠돌아도 항상 잊지 못할 것이네.

위의 詩는 李白이 杜甫를 읊은 單 四首에서 그 첫首이다.<sup>5)</sup> 또 單 二首로 셈하는 學者도 있다.<sup>6)</sup>

2) 小尾郊一, (1982) 李白, 東京, 集英社, p. 151.

3) 郭沫若, (1972) 李白과 杜甫, 北京, 人民文學社, p. 156.

4) 高適, 宋中別周梁李三子: '李侯懷英雄, 衞旆乃天資. 方寸且無間, 衣冠當在斯. 俱爲千里遊, 忽念兩鄉辭.'

5) 大島實之助, (1981)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大出版部, p. 425.

6) 李內暉, (1982) 杜詩研究論叢, 서울, 二友出版社, p. 10.

松浦友久, (1976) 李白研究, 東京, 三省堂, p. 124.

本稿에서 李白의 四首를 言及하고 있으니 좀 더 관찰해 보겠다.

李白이 비록 나이가 11세 年上이나, 그가 杜甫에 대하여 厚意의인 感情은 杜甫와 같다. 그러나 李白은 杜甫에 대해서 詩가 많지 않아 單 四首뿐이다.

그것은 모두 齊·魯를 漫遊하던 時期의 作品들이다. 그 前後를 즈음하여 더 作品이 있으리라 추측은 되지만, 아깝게도 散失되었다. 前人들은 往往 現存하는 詩歌의 數量으로서 李白과 杜甫의 感情의 厚薄을 셈하여서, 杜甫는 李白에 對해서 敦厚한 反面 李白은 杜甫를 薄待했다고 말하여 왔다.<sup>7)</sup>

‘沙丘城’은 沙丘縣城을 말하며 지금의 臨淸縣의 西쪽에 있다. 楊齊賢은 河北省 平鄉縣의 東北에 있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다. 즉 그것은 殷의 紂王이 築城하여 宴會로 즐기던 장소를 말함이다. 또 秦의 始皇帝가 헐어버린 河北城(鉅鹿)의 沙丘臺도 아니다.<sup>8)</sup>

李白은 魯酒를 마셔서도 杜甫를 잊지 못해 했으며, 齊歌를 들어도 氣分이 유쾌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日夕連秋聲’이라고 하여 ‘風’字를 안 쓰면서 ‘風’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修辭法의 技巧으로써 孤獨感을 表示하여, 眞摯한 友情을 나타냈다.

첫句에서 ‘我來竟何事’라고 提起한 問題點을 酒·歌·水·風으로 비유하여 썼으니, 李白의 杜甫에 대한 友情 이상의 敬慕하는 뜻을 表出하여 末句에서 ‘浩蕩寄南征’으로 끝을 맺었으니, 그의 杜甫에 대한 끝없는 友情을 再吟味 하겠다.

## 2. 秋日魯君堯祠亭上宴別杜甫闕范侍御

我覺秋興逸	나는 기분에 들떠 안락해지니
誰云秋興悲	누가 가을을 쓸쓸하다고 말하겠는가
山將落日去	서산의 해는 뉘엿 뉘엿 지려하고
水與晴空宜	강물은 더 더욱 맑아져 하늘색과 같다.
魯酒白玉壺	이 즈음 魯의 술로 채워진 白玉의 술병 꺼내 놓고
送行駐金羈	작별할 말 고삐를 멈추게 하니
歇鞍憩古木	안장을 풀어헤쳐 古木의 그늘에 쉬고
解帶挂橫枝	말의 복대는 풀어 나무 가지에 걸쳐 놓았네
歌鼓川上亭	넋가 요정에 올라 북을 쳐 흥 돋구고
曲度神臈吹	노래 가락은 신들린 듯 멀리 넓게 퍼져 울려
雲歸碧海夕	구름은 碧海쪽으로 돌아서 사라지고
雁沒青天時	날으는 기러기도 青天쪽으로 가서 숨어버린다
相失各萬里	기러기처럼 우리들 길은 萬里나 떨어져 있어
茫然空爾思	쓸쓸하고 얼빠진 듯 자네만을 그리워 할뿐

詩題에서의 杜補闕·范侍御라는 兩人을 누구인지 잘 알수는 없지만, 杜補闕은 杜甫를 指稱하고 있다.<sup>9)</sup> 애매모호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위의 詩와 「戲贈杜甫」를 제외하여 杜甫에게 관한 詩가 單 2首라고 하고 있다.

堯祠는 地名大辭典에 의거해서 보면 「堯山」의 中心地이고, 山東省 益都郡의 西北 八里쯤에 있다. 이 山의 이름은 堯가 이곳에 올라서 수렵을 했다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서 堯의 山祠가 이곳에 있다는 學說이 있다. 그러나 堯祠亭은 堯山祠 근처에 있는 亭子일 것이다.<sup>10)</sup>

留別이란 것은 멀리 떠나는 사람이 뒤에 남는 사람에게 이별의 섭섭함을 詩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郭沫若, 前掲書, p. 159.

8) 大島實之助, 前掲書, p. 424.

9) 久保天隨, (1974) 李白全詩集 中卷, 東京, 日本圖書, p. 492.

10) 大島實之助, 前掲書, p. 431.

첫 四句에서 天高馬肥의 情趣를, 다음 四句에서는 亭子에 이르기 까지의 景觀을, 또 다음 四句는 亭子 위에서 眺望한 바의 秋景을, 結 兩句에서는 作別 以後의 豫想되는 點을 서술했다.

### 3. 魯郡東石門送杜二甫

醉別復幾日	이별을 서러워 술 마셔 취한지 몇일이 지났는가
登臨徧池臺	평소처럼 누대에 올라 바라 보았네
何時石門路	어느 때인가 틈내어 산 오르는 길목에서
重有金樽開	다시 술통 열어 술잔을 나눌 것인가
秋波落泗水	秋色은 泗水의 얇은 물에 비쳐 맑고
海色明徂徠	물 빛은 徂徠山에 반사 되어 비치네
飛蓬各自遠	바람에 흩날리는 쭉처럼 서로 떨어져 있으니
且盡手中杯	언제일까, 아끼는 手中의 술잔에 술 따르는 날은.

윗 詩의 詩題에서 ‘杜二甫’의 ‘二’는 排行이고 石門은 다음과 같다.

杜甫의 「題張氏隱居二首」의 一首에서 “石門斜日到林丘”와 「劉九法曹鄭瑕丘石門宴集」에도 ‘石門’이 있다. ……山이 과히 높지않고, 岩石의 峽谷이 對峙해 있으니 마치 門과 같아서 그러한 이름이 되었다. 가운데는 石門寺가 있으며, 그 뒷편에는 日涵峯이 있다. 그 峯의 頂上에는 샘물이 솟아, 산골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내려, 가끔 폭포로 된다. 石門山은 지금 曲阜縣의 城 東北部 약 60리쯤에 있으며, 津浦鐵路 歇馬亭역 東쪽 7·8리쯤에 있다.<sup>11)</sup>

첫 句에서,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情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石門山과 徂徠山의 가을 풍경을 감상한 바를 적었고, 結 兩句에서 ‘飛蓬’처럼 흩어지는 신세를 한탄하여, 영광의 먼 훗날을 기약하면서 즐겁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 4. 戲贈杜甫

飯顙山頭逢杜甫	飯顙山 산정에서 그리던 그대를 만나니
頂戴笠子日卓午	머리에 샓갓 눌러 썼으니 때는 정오.
借問別來太瘦生	작별한 연후 여워어진 내력을 물어 보지만
總爲從前作詩苦	생각컨대 모두 詩짓기 위한 고생 때문인 듯

위의 시를 李白의 作品이 아닌 僞作이라는 學說도 있고 「本事詩」의 紀事로 傳한다는 說로 간단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李白集에는 本詩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僞作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本詩는 唐代의 孟僊의 「本事詩」에 있고, 孟僊은 李白이 杜甫의 ‘窮하고 固執不通’을 諷刺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 또한 唐代의 段成武도 「西陽雜俎」에서 李白이 杜甫를 조롱했던 것으로 했다. 諷刺와 戲弄이라고 말하는 見解는 唐代에는 상당히 광범위 했다. 이러한 見解로부터 「唐書·文苑傳」에서는 “天寶 末期의 詩人으로는 杜甫와 李白의 명성이 비슷해졌지만, 李白은 스스로 자기의 詩文이 奔放한 것을 자부했으며, 杜甫가 매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飯顙山’의 시로 놀렸다.”라고 말한 것이 定說이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된 罪이다. 시의 後半이 二句는 一問一答을 하고 있으며, 李白의 獨白이 아니라, 李白과 杜甫 兩人的 對話이다. 다시 상세히 서술하자면, “작별 한 후에 죄나 여윈 것 같다.”라고 李白은 질문했고, “옛날부터 시를 짓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이라네”라고 杜甫가 대답했던 것이다. 이렇게 매우 친절한 詩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대로 해석 되었던 것이다.

杜甫가 시를 짓는데 고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江上值水如海勢, 聊短述」라는 詩에서

11) 中國唐代文學會, (1983) 唐代文學 第四輯, 中國 陝西人民出版社, pp. 322~323.

“詩人으로서 좋은 詩語의 귀절에 열중하는 고집이 있어, 佳句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은 한 죽을 수 없다.”—즉 좋은 詩句를 위해서는 生命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解悶 十二首」의 第七首에서는 “熟知二謝將能事, 頗學陰何苦用心.”—결국은 謝靈運과 謝朓의 시를 열심히 읽어 공부했고, 더욱 陰鏗과 何遜의 작고 노력함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苦’字를 강조해서 말했다. 그는 옛사람의 ‘苦’를 체득했을 뿐만 아니라, 同時代 學者들의 ‘苦’를 또한 체득했던 것이다. “淸詩近道要, 識子用心苦”(「貽阮隱居」)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단맛과 쓴맛을 식별할 줄 알고 고생을 달게 여긴다는 것이다. “苦用心”의 결과 저절로 수척해진 것이다. 그의 「暮登四安寺鐘樓 (지금 四川省 新津에 있음) 寄襄十迪」에서 “知君苦思緣詩瘦”라는句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借問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에 의한 가장 주도 면밀한 脚注이다. 故로 ‘苦’字의 뜻이 해명되었을 뿐더러 ‘瘦’字의 내력도 알수있다. 이렇게 친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쓰여진 詩가 ‘비난’, ‘장난’으로 해석되어, 杜甫의 窮하고 고집불통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품으로 취급답게 될 줄이야! 李白의 참 뜻을 모르는 처사며, 杜甫로 써도 듣기 거북한 말이다.<sup>12)</sup>

위와 같은 學說에 대해서 假說에 假說을 겹쳐서 고증하고 있는 點이 많으나 설득력이 없다.<sup>13)</sup> 그러나 李白의 作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魯郡의 東石門에서 이별한 후에, 李白과 杜甫는 다시 만난 일은 없는것 같다. 「本事詩」(高逸, 第三)에 보이는 「飯顛山……」의 七絶은 「唐摭言」(卷十二, 輕佻) 「舊唐書」(卷一九〇, 杜甫傳), 「唐詩紀事」(十八, 杜甫) 등에서도 引用하고 있다. 그러나 ① 李白詩集의 各 교과서(텍스트)에 보이지 않는다. ② 「本事詩」라는 書籍의 性格. ③ 飯顛山이라는 地名의 불확실성 等等의 點에서 판단하면 「本事詩」 편찬의 時點—光啓 二年(八八六年) 自序—에 있어서 杜甫 像의 說話化시켰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14)</sup>

위와 같이 相反된 見解의 差異는 좁혀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 III. 杜甫의 李白에 대한 詩 十五首

1. 贈李白 二首 其一
2. 贈李白 二首 其二
3. 與李十二白同尋范十隱居
4. 冬日有懷李白
5. 春日憶李白
6. 送孔巢父謝病歸遊江東兼呈李白
7. 飲中八仙歌
8. 蘇端薛復筵簡薛華醉歌
9. 昔遊
10. 遺懷
11. 夢李白 二首 其一
12. 夢李白 二首 其二
13. 天末懷李白
14. 寄李十二白二十韻
15. 不見

12) 郭沫若, 前掲書, pp. 162~163.

13) 松浦友久, 前掲書, p. 154.

14) 松浦友久, 前掲書, p. 124.

杜甫는 儒學者인 十三代祖 杜預의 文治武功(立功立言)과 祖父 杜審言(詩冠古)의 詩名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唐代社會는 儒家思想을 正統思想으로 인정하던 때이니, 李白의 家世와는 천양지차라고 하겠다.

杜甫가 李白을 처음 洛陽에서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33세이었다. 그가 비록 '翰墨場'이고 명성은 좀 있었다고 하지만, 李白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杜甫의 유명한 詩「三吏」, 「三別」 등은 그후 약 10년뒤의 작품들이다. 當時의 殷璠이 편찬한「河岳英靈集」에는 杜甫의 作品이 없다.<sup>15)</sup> 그러니 “李杜齊名”은 오랜 뒤의 일이다.

杜甫의 交友관계는 李白처럼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敦厚한 편이니 房琯의 例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杜甫는「述懷」에서 눈물을 흘리며 拾遺의 職을 下賜받고, 君恩은 두텁다고 말했다. 그러나 左拾遺의 職을 맡은지 얼마 안되어 房琯의 파면을 변호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 상소문 때문에 肅宗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결국은 곧 杜甫는 그 職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sup>16)</sup>

이처럼 杜甫의 진지한 우정을 볼 수 있으니, 孤高한 學者 鄭虔, 그의 아내 그리고 李白뿐이라고 하겠다.

### 1. 贈李白 二首 其一

二年客東都	이태 동안 東都에 길 손 되어도
所歷厭機巧	처세의 잔재주 못 부렸어라.
野人對腥膻	해어와 육류의 비린내만 맡는 소박한 야인
蔬食常不飽	소찬도 늘 배불리 먹지 못하네.
豈無青精飯	靑精飯 仙人들 음식에
使我顏色好	내 어찌 젊어지지 않으려만
苦乏大藥資	귀한 약 바이 없음은
山林跡如掃	내 산 속을 더듬지 않은 탓.
李侯金闥彥	李白은 일찍 金馬門에 들었던 才士
脫身事幽討	이제는 布衣로 초야에 풀을 뜯는다.
亦有梁宋遊	그래서 梁·宋을 두루 돌았고
方期拾瑤草	오늘은 黃芝풀 꺾으러 갔겠다.

이토록 杜甫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親友가 없었던 것처럼, 李白을 한번 뵈자마자 이러한 詩를 지었으니, 그의 '仙風道骨'에 마음이 끌렸음을 알 수 있겠다. 自他가 모두 공인하는 儒家의 杜甫가 李白의 그 人間像에 매혹되어 道家에 약간의 흥미를 갖게된 一面을 엿볼 수 있다.

### 2. 贈李白 二首 其二

秋來相顧尙飄蓬	가을부터 이제 갓 떠돌아 헤매는 우리들
未就丹砂愧葛洪	여태 丹砂 못 얻어 葛洪에게 면목 없겠다.
痛飲狂歌空度日	통음 광가로 지새는 나날들
飛揚跋扈爲誰雄	제멋대로 날 뽐은 뉘 위함이고.

二首도 一首와 같이 詩題대로 直接 李白에게 써서 드린 시이니, 一首는 처음 杜甫가 그에게 드린 것이고, 二首는 天寶 四年 가을 山東에서 약속대로 再會 했을때의 작품일 것이다.<sup>17)</sup>

15) 安旗, (1983) 李白縱橫探, 中國, 陝西人民出版社, p. 166.

16) 梁容若, 王天昌, (1977) 書和人(一), 臺北, 國語日報出版部, p. 595.

17) 松浦友久, 前掲書, p. 126

“空度日”은 李白과 杜甫 兩人이 布衣 신세라는 것을 절감하며, “飛揚跋扈”는 이 시에서 李白의 성격이 豪放함을 表現하고 있지만, 지금은 他人을 포함하는 경우로 쓰이고 있다.<sup>18)</sup>

### 3. 與李十二白同尋范十隱居

李侯有佳句	李公은 시를 잘 지어
往往似陰鏗	왕왕히 陰鏗의 시에 닮았다.
余亦東蒙客	나 또한 山東 蒙山의 나그네이건만
燐君如弟兄	그대 생각하기 친 형제 같았다.
醉眠秋共被	취하여 자던 가을 밤엔 이불을 함께 덮었고
携手日同行	손 마주 잡고 온 종일 거닐었었다.
更想幽期處	둘만으로 멧적어 딴 숲은 이를 찾았고
還尋北郭生	언젠가 北郭의 范生도 방문했었다.
入門高興發	范의 門에 들면은 새로운 흥취 일어나고
侍立小童清	옆에 선 童子마저 유달리 새맑았다.
落景聞寒杵	황혼에 들었던 외로운 다듬잇소리
屯雲對古城	몰려가던 구름을 옛 성에서 보았었다.
向來吟橘頌	여태껏 우리들은 屈原의 橘頌을 읊조렸건만
誰與討蓴羹	그 뉘가 우리들을 위하여 張翰의 蓴羹을 구해 줄꺼나
不願論簪笏	비너(감투)와 홀(벼슬)을 입에 담고 싶지 않고
悠悠滄海情	오직 창해와 더불어 삶을 누비고 싶을 뿐

十二와 十은 姓의 아래에 數字로 설명하는 從兄弟間의 태어난 順番을 말하는 것이니, 李白은 十二番이고, 范은 十番인데, 范氏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隱士인 것 같으며, 杜甫는 李白과 그의 居所를 방문하여, 그에게 물어본 바를 기재했다.

杜甫는 李白의 詩才에 共感, 敬愛하였다. 한 이부 자리에서 술 취해 잠 자고 서로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산책한 것이 친형제와 같은 토타운 情이 있다고 읊고 있다.

그들은 親兄弟 이상의 친밀한 友情으로 文章을 論했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 못 잊어하고 있다.

### 4. 冬日有懷李白

寂寞書齋裏	고즈넉한 서재의 뒤꼍에
終朝獨爾思	날 샅녁까지 홀로 그대 생각한다.
更尋嘉樹傳	새삼 左傳의 嘉樹를 읽어
不忘角弓詩	角弓詩의 연유처럼 우리 둘의 友情을 어찌 잊으리
短褐風霜入	짧은 옷소매론 風霜이 스며들고
還丹日月遲	還丹약 지으려면 날짜가 걸리겠다.
未因乘興去	그대 찾고픈 흥에 겁지만 얼른 길 떠나지 못하고
空有鹿門期	더불어 鹿門山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네.

“短褐”은 貧賤을 상징하는 복장이니 杜甫가 洛陽을 떠나 長安에 올라왔으나, 차가운 겨울 바람에 몸이 움추려 들고 있지만, 江南에서 不老不死의 仙藥을 만들어 낼테라고 뽐내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좋은 소식도 없다. 그러니 鹿門山에서 만날 약속도 언제 이행할 수 있을런지 몰라서, 애달프다고 자탄하고 있다.

18) 胥樹人, (1984) 李白和他的詩歌,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p. 121.

## 5. 春日憶李白

白也詩無敵	太白的 시에 겨눌자 누구인고
飄然思不群	가벼이 나부끼는 정신은 우뚝한 單身像
清新庾開府	산뜻한 詩風은 庾身과 어깨 겨눠
俊逸鮑參軍	뛰어난 재능은 鮑照와 비등해
渭北春天樹	봄날 渭水의 파릇 파릇한 나무가지
江東逸暮雲	강남 땅 구름에 가리운 태양
何時一樽酒	어느날 통술 서로 나누면서
重與細論文	다시 더불어 기운차게 글을 논할고.

杜甫는 李白의 詩的인 天才性을 재삼 감탄했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 치며 생긴 作品이라고 하겠다. 그는 長安生活에 익숙해져서 자신감을 가졌으며, 求仕에의 집념에 면학함을 表示하고 있으며 장래에 李白을 만나면 “重與細論文”이라는 結句에서 쓰고 있어, 다시 한번 그러한 때가 왔으면 하고 杜甫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 6. 送孔巢父謝病歸游江東兼呈李白

巢父掉頭不肯住	巢父는 권을 뿌리치며 더 머물지 않고
東將入海隨煙霧	동쪽 바다의 煙霧 따라 仙人을 좇겠다.
詩卷長留天地間	그대는 명편의 시 하늘과 땅 사이에 새겨두고
釣竿欲拂珊瑚樹	낙시대 드리워 바다의 산호수 희롱하려는 구나
深山大澤龍蛇遠	巢父 사라짐은 龍蛇가 深山大湖로 숨는 격인즉
春寒野陰風景暮	이른봄 들녘엔 땅거미 아스라이 저무는구나.
蓬萊織女回雲車	蓬萊섬 仙女는 五色의 수레 타고 마중오고선
指點虛無引歸路	묘연한 수평선을 가리키며 그대를 안내하리라.
自是君身有仙骨	본시 그대는 仙風道骨의 몸
世人那得知其故	世人은 어찌 그대 인간 티끌을 떠나는 까닭을 알랴.
惜君只欲苦死留	애오라지, 그대 아쉬워 한사코 만류하지만
富貴何如草頭露	풀이슬에 덧없는 부귀에 아랑곳 할소나.
蔡侯靜者意有餘	蔡侯는 그지없이 이별 아쉬워
清夜置酒臨前除	맑은 밤, 남녘 섬돌아래에 술자리 베풀고
罷琴惆悵月照席	거문고 그친즉 시린 달빛이 서러운 자리를 비춘다.
幾歲寄我空中書	그대 길 떠나면 몇 번이나 하늘 밖 소식 전해 주려나
南尋禹穴見李白	행여 남녘 땅 禹의 무덤을 찾다 李白을 만나면
道甫問訊今何如	‘그대(李白) 어찌 지내는다?’고 내 말 전해주소.

李白이 이전에 “竹溪之逸”의 一員으로서 交遊를 맺었던 孔巢父가 病을 이유로 해서 官職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사실을, 杜甫가 傳言하는 형식으로 쓴 것이다.

杜甫는 孔巢父가 官職을 버리고 神仙의 취미로 江南땅으로 떠나버린 사연을 李白과 비유하여서, 李白의 富貴榮華를 풀잎의 아침 이슬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는 알고 있다고 했다.

## 7. 飲中八仙歌

知章騎馬似乘船	賀知章이 안장에 오름은 배에 오르는 것과 같이 곧드레였고
眼花落井水底眠	흐릿한 눈이 깜박거리다 흑여 우물에 떨어지면 물속에서 잠들어 버렸다.

汝陽三斗始朝天  
道逢麴車口流涎  
恨下移封向酒泉  
左相日興費萬錢  
飲如長鯨吸百川  
銜杯樂聖稱避賢  
宗之蕭灑美少年  
舉觴白眼望青天  
皎如玉樹臨風前  
蘇晉長齋繡佛前  
醉中往往愛逃禪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下上船  
自稱臣是酒中仙  
張旭三杯草聖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煙  
焦遂五斗方卓然  
高談雄辯驚四筵

汝陽王은 세말의 술을 비우고서야 조정에 나갔고,  
혹여 골목길에서 수레라도 만날라치면, 침을 드리우고선  
옛 酒泉 땅 돌려달라고 꾸짖혔었다.  
左丞相은 하루 술값 일 만전을 썼건만  
그 술마시는 모습은 큰 고래가 백의 냇물을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잔을 입에 대면은 聖人의 경지를 즐겼고, 賢人은 천시했다.  
崔宗之는 말쑥한 美少年으로  
잔을 들고선 俗人을 내리보며 창공을 우러르는 모습은,  
달빛에 돋보이는 玉樹가 바람결에 나부끼는 모습이어라  
蘇晉은 탕화의 불상 앞에서 긴 禁酒를 하지만  
취하면 조율면서 곧잘 坐禪에 든다.  
李白은 술 한 말만 마시면 시 백수가 나오고,  
長安 市井의 술집에서 곤드레가 되면 아무데서나 잔다.  
天子의 부름에도 배 타기를 꺼려하고  
술 속의 신선들과 즐겨 닳두리하며 酒仙이라 하네.  
張旭은 석잔의 술에 草書의 絶品 휘갈겼고,  
王公의 앞에서도 모자 벗어 정수리를 스러냈고  
붓을 날려 백지에 그으면 글자에서 구름과 연기가 꽃피었다.  
焦遂는 다섯 말의 술을 마셔야 정신이 맑아오고  
그의 능숙한 달변으로 좌중을 들먹거렸다.

杜甫는 盛唐時에 文壇의 여덟분이 飲酒를 좋아하는 호탕한 一面을 單 14字로, 特히 李白은 28字로 淡泊하고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그들의 성격과 재능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李白의 天才的인 민첩성과 豪放性을, 술 한잔에 시 한수, 술 한말에 시 百首, 天子가 호출해도 술이 워낙 취해서 스스로 배에 오르지 못해 부축해야만 배에 오를 수 있었고, 스스로 “酒中神仙”이라고 했다.

李白은 詩仙이며, 또한 酒仙이니 술 마시고 흥에 겨워 詩를 지으니 마치 신들린듯한 모습이 더라고 했으니, 杜甫가 李白에 대한 마음 씩씩이가 神과 같이 했다. 그는 天才 詩人이 豪宕 飄逸한 배후에 깊이 감춰진 적막감과 本心을 충분히 알고 있다.<sup>19)</sup>

## 8. 蘇端薛復筵簡薛華醉歌

文章有神交有道  
端復得之名譽蚤  
愛客滿堂盡豪傑  
開筵上日思芳草  
安得健步移遠梅  
亂插繁花向晴昊  
千里猶殘舊冰雪  
百壺且試開懷抱  
垂老惡聞戰鼓悲  
急觴爲緩憂心壽  
少年努力縱談笑  
看我形容已枯槁  
座中薛華善醉歌

文章에는 人力 이상의 것이 있고 人間 사범에는 道義가 있다.  
蘇端 薛復은 일찌기 들을 갖추어 이름 있었다.  
손님을 좋아하여 집안 가득 호걸들이 들끓었고  
실날 주연을 베풀어 봄 풀 없음을 아쉬워 했네.  
어찌하면 즐겨 걸어 멀리 있는 매화를 옮겨 놓고선  
어지러이 수염에 꺾어 꽃아서 하늘 아래 떨치고 나서고파라.  
천리 아득히는 여태껏 지난해 얼음이 남았거늘  
많은 술단지 조금씩 맛보며 회포를 풀까나.  
늙어서 더욱 서럽게 들리는 전장의 북소리는 싫구나.  
자주 마시어 가슴 메운 걱정을 늦추고 싶구나.  
젊은이들 실 없이 놀며 담소에 젖었거늘  
보려무나, 내 몰골 이미 시들어 마른 것을.  
한 자리에선 薛華가 어연간히 취하여 종이 노래하고,

19) 沈謙, (1983) 神話·愛情·詩, 臺北, p. 188.

歌辭自作風格老  
近來海內爲長句  
汝與山東李白好  
何劉沈謝力未工  
才兼鮑照愁絕倒  
諸生頗盡新知樂  
萬事終傷不自保  
氣酣日落西風來  
願吹野水添金杯  
如灑之酒常快意  
亦知窮愁安在哉  
忽憶雨時秋井塌  
古人白骨生青苔  
如何不飲令心哀

酒宴 席上에서 薛華의 詩才를 李白의 才能과 併稱한 것임. 發想의 形式으로서는 贈答詩의 패턴(본보기)을 답습한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併稱의 한 쪽인 李白의 「長句」(아마도 장편의 歌行類)가 例로 든 點에 注目해야 될 것이다.<sup>20)</sup>

## 9. 昔 遊

昔者與高李  
晚登單父臺  
寒蕪際碣石  
萬里風雲來  
桑柘葉如雨  
飛去(共)徘徊  
清霜大澤凍  
禽獸有餘哀  
是時倉廩實  
洞達災區開  
猛士思滅胡  
將師望三臺  
君王無所惜  
駕馭英雄材  
幽燕盛用武  
供給亦勞哉  
吳門轉粟帛  
泛海陵蓬萊  
肉食三十萬  
獵射起黃埃  
隔河憶長眺  
青歲已摧頹  
不及少年日  
無復故人杯  
賦詩獨流涕

그 가사는 스스로 능숙하여 풍류를 이루었다.  
요 근래 나라 안엔 長句를 일삼거늘  
그대와 山東의 李白을 뉘 따르리  
何遜, 劉孝卓, 沈約, 謝朓 모두 그대만 못하고  
鮑照를 넘는 그대의 재간, 鮑照가 질세라 걱정하것다.  
함께 한 젊은이들과 어울려 즐거움을 나누었지만,  
모든 일, 끝내는 내 스스로 온전히 못 간직했음을 뉘우치누나.  
취흥에 젖어 절정에 오르면, 해는 벌써 지어 갈바람 불고.  
원컨대, 들녘 고인 물 떠서 금잔에 보태고  
통술 같은 술이 언제나 내 마음을 즐거이 해 주누나.  
다시 깨닫는건, 그지없는 내 시름 간곳 없음이고,  
문득 떠오르는, 가을의 곳은 비에 무너지는 내 집 우물의 흙.  
옛 사람 해골엔 벌써 푸른 이끼 돌았을지도  
어쨌거나, 내 어이 안 마시고 마음을 서럽게 하라.

옛날 高適과 李白은  
늦게 單父의 琴臺에 올랐것다.  
寒天의 황무지는 아득히 碣石 땅까지 뻗었고  
만리 밖 하늘 저편으로 風雲이 날아왔다.  
뽕나무 산뽕나무들의 잎은 빗물같이 똑똑지고  
튀는 콩이파리들로 낭치히 흩어졌다.  
맑은 서리 내리어 孟諸澤은 얼었고  
사냥 당하는 들짐승들은 그지없이 서럽겠다.  
요즈음 天下의 곡창은 그득하고  
어디든지 길은 뚫려 교통은 편하다.  
壯士는 오랑캐를 치려 버르고  
武將은三公의 벼슬을 노린다.  
天子는 미련없이 그들의 욕심을 풀어  
英雄의人材들을 삼는다.  
幽燕 땅엔 한참 힘겨움이 성하고  
거기에 하나 하나 軍費 대는 것 꽤나 힘겨운 일.  
남쪽 뭇나라에서 식량과 비단이 운송되는즉  
바다에 배 띄어 蓬萊山 감돌아 支那海 건넌다.  
고기 먹는 兵卒이 三十萬名  
사냥의 발굽으로 누린 먼지를 일으켰다.  
黃河에서 북녘 아득히 바라봤던 추억은 새롭고  
벌써 내 젊은 정령은 시들어 버렸다.  
되돌아갈 수 없는 소년의 나날  
高適, 李白과 더불어 술잔 기울이던 그 때도 옛날  
詩賦로 내 홀로 눈물 흘리며

20) 松浦友久, 前掲書, p. 130.

亂世想賢才  
有能市駿骨  
莫恨少龍媒  
商山議得失  
蜀主脫嫌疑  
呂尚封國邑  
傳說已鹽梅  
景晏楚山深  
水鶴去低回  
龐公任本性  
携子臥蒼苔

오늘의 亂世에 현명한 才士 생각난다.  
옛사람처럼 千里馬의 사주는 이 있다면  
名馬 없다고내 어찌 한탄하라  
商山의 李泌은 정치의 득실을 의논하고  
蜀主 같은 우리 임금님에겐 시새움이 없기를 빈다.  
郭子儀는 이미 國邑에 봉해졌고  
傳說은 벌써 鹽梅의 職에 맡겨졌다.  
楚地땅 산골 깊숙히 해는 저물고  
못가의 鶴들은 깃 찾아 돌아가려 한다.  
내 龐公처럼 本性을 섬기어  
어린이들과 더불어 푸른 이끼 짙은 트랙에 누워 지낸다.

이 작품과 「遺懷」는 李白이 죽은 다음에 지은 것이니, 杜甫가 青春回顧의 一環으로써 李白과 高適과의 交遊를 읊은 것이다.<sup>21)</sup> 三人은 單父에서 함께 사냥을 했다. 當時에 單父縣尉는 岑況이니 그는 詩人 岑參의 兄이다.<sup>22)</sup>

## 10. 遺 懷

昔我遊宋中  
惟梁孝王都  
名今陳留亞  
劇則貝魏俱  
邑中九萬家  
高棟照通衢  
舟車半天下  
主客多歡娛  
白刃難不義  
黃金傾有無  
殺人紅塵裏  
報答在斯須  
憶與高李輩  
論交入酒壚  
兩公壯藻思  
得我色數腴  
氣酣登吹臺  
懷古視平蕪  
芒碭雲一去  
雁鷺空相呼  
先帝正好武  
寶海未凋枯  
猛將收西域  
長戟破林胡  
百萬攻一城  
獻捷不云輸  
組練棄如泥

일찍 내 宋州에 놀았었다.  
바로 梁 孝王의 서울이었다.  
그 이름은 陳留의 버금이었으나  
번창하기로는 貝州 魏州와 맞서는 곳.  
宋州 성 안은 九萬戶나 되었고  
높은 지붕들은 네거리에 즐비했다.  
天下의 배와 수레는 절반이나 여기 모여 오고  
토박이로 나그네와 서로 어울려 재미로이 지내는구나.  
不義의 자에게는 하얀 칼로 원수를 갚는다.  
黃金은 있든 없든 탕진해 버리고  
노상에서 살인하면  
번번히 복수가 벌어졌다.  
그립구나, 내 高適 李白과 더불어  
주막에 들어 술잔으로 정나누던 때  
두 벗은 文學이랑 思想이랑 한참이었지만  
내 나타나면 한결 낮빛 부드러이 담소했었다.  
취기 멎돌아 거나해지면 우리들은 吹臺에 올라  
가이 없는 荒原 바라보며 과거를 되새겼다.  
芒碭 쪽을 보면은 帝王의 雲氣 사라지고  
주변은 기러기와 물오리의 소리 뿐이었다.  
먼저 임금님(玄宗)은 武를 즐겼었고  
天下는 아직 피폐하지는 않았었다.  
猛將들은 西域땅을 손아귀에 넣었고  
긴 창을 휘두르며 林湖를 무찔렀다.  
武將들은 百萬의 軍士로 적의 한 성을 공격하나  
언제나 이겼노라고 만하여 패전을 감추었다.  
將卒들의 훈련은 진흙 버리듯 하고

21: 松浦友久, 前掲書, p. 132.

22: 胥樹人, 前掲書, p. 122.

尺土負百夫  
拓境功未已  
元和辭大壘  
亂離朋友盡  
合沓歲月徂  
吾衰將焉託  
存歿再嗚呼  
蕭條益堪愧  
獨在天一隅  
乘黃已去矣  
凡馬徒區區  
不復見顏鮑  
繫舟臥荊巫  
臨餐吐更食  
常恐違撫孤

백 사람을 죽이고선 한 자의 땅을 뺏았다.  
변경의 땅을 일구는 보람 마치지 않았는데  
太和의 기운은 이미 다하여 난리가 번졌다.  
난리통 그 즈음에 벗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세월도 다음으로 다음으로 연이어 흘렀다.  
내 이 노쇠의 몸은 어디에 의탁할까나  
그대들(高·李)도 가고, 나 또한 가야지.  
쓸쓸하다 내 외로운 부끄러움  
먼 하늘 가 외진 곳에 있는 나.  
千里馬 같은 두 벗은 이미 가고,  
내 같은 鈍馬만 남아서 구차하구나  
또 한번 顏鮑 같은 두 벗 만날 수는 없고  
나는 荊巫 땅에 배 매어 두고 엎디어 산다.  
밥 먹다 토하고선 다시 먹으며  
언제나 벗들의 후예들에 도움 되고저 하는 내 정성이렸다.

이렇듯 杜甫가 체념적인 작품을 쓴 것은 高適이 죽고나서 이듬해이고, 李白이 죽은지 4년째 되는 해의 일이다. 그리고 4년후에는 杜甫 자신도 죽는다. 죽은 친구들에 대한 切實한 語調를 구사했으며 자신의 운명도 다하고 있음을 예감한 듯 하다.

### 11. 夢李白 二首 其一

死別已吞聲  
生別常惻惻  
江南瘴癘地  
逐客無消息  
故人入我夢  
明我長相憶  
恐非平生魂  
路遠不可測  
魂來楓林青  
魂返關塞黑  
君今在羅網  
何以有羽翼  
落月滿屋梁  
猶疑照顏色  
水深波浪闊  
無使蛟龍得

죽어 헤어져 슬픔에 목이 차고  
살아 생전 이별을 늘 가없게 여기는 마음  
江南 땅은 개펄에서 毒기운이 서리는 곳  
쫓겨난 나그네 어디에 있는지 소식 궁금해,  
옛 친구 그리움에 지쳐 꿈속에서 만나니  
내 오랫동안 그리던 때문이겠지  
이 세상 혼백은 아닌듯한 모습  
길은 너무 멀어 헤아리기 어렵네  
꿈길엔 곱게 단풍 든 숲에서 나왔다가  
그대의 혼백은 밤의 단풍 숲으로 들어가네  
지금 그대는 죄인으로 가두어져 있거늘  
무엇을 어찌하여 날개 깃을 펼쳤는고  
지는 달빛 내집 큰 들보에 짝 메워  
꿈속에서 얼굴을 비쳐 보았으리  
물 깊어 크고 작은 물결 일렁이는 곳이니  
제 멋대로 날 뛰는 교룡에 조심 하소서

### 12. 夢李白 二首 其二

浮雲終日行  
遊子久不至  
三夜頻夢君  
情親見君意  
告歸常局促  
苦道來不易

뜬 구름 온 종일 오락가락 할뿐  
나그네는 이제껏 오지 않으니  
연 사흘을 꿈 속에서만 보이니  
정의가 도타운은 지금 알게 되었오.  
꿈 길에서의 늘 초조한 그대의 낮빛  
오려고하나 길이 험해 쉽지 않다고 말하네

江湖多風波  
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  
若負平生志  
冠蓋滿京華  
斯人獨顛顛  
孰云網恢恢  
將老身反累  
千秋萬歲名  
寂寞身後事

강 호수에 바람과 물결이 세고 높아  
험한 뱃 길에 그대 떨어질까 두려워지네,  
문을 나서며 세어버린 머리 털 끊네  
한 평생의 뜻 못 이룬 까닭인 듯  
번화한 서울엔 官人 貴人도 많거늘,  
다만 그대만이 파리하고 여윈 모습이네  
좋은 운수가 넓고 넉넉하다고 누가 말했나  
바야흐로 늙은 몸이 감옥살이 하다니  
천년 만년 영원한 그대 이름  
죽은 후의 일 고요하고 쓸쓸함 그지없는 죽은 후의 일.

一首에서, 杜甫는 변치않은 友情의 所産의 결과이며, 李白이 비록 永王 李璣의 사건에 連坐되어 夜郎으로 유배되는 몸이지만, 그의 罪는 결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위협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不朽의 友情을 詩로 表出하고 있다.

二首에서는 老子的 “天網恢恢”말을 引用한 哲理詩로써 비분을 참지 못해하고 있다. 長安과 洛陽이 모두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적재 적소에서 雄志를 펴려고 하지만, 李白은 곧 60세가 돼가는 몸으로써 仕官의 길은 없고 오히려 범법자가 되었다니! 하고 변호를 하며, 봉건 사회에 항소를 하고 있다.<sup>23)</sup>

杜甫는 李白이 詩人으로써 천만년이나 오래 추앙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 13. 天末懷李白

涼風起天末  
君子意如何  
鴻雁幾時到  
江湖秋水多  
文章憎命達  
魑魅喜人過  
應共冤魂語  
投時贈汨羅

시원한 바람은 하늘 끝에서 일어나고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 편지는 언제 이곳에 왔는지  
그곳의 江湖는 어찌서 가을인데 물이 부는고  
문장으로 운명을 통하는 것을 미워하는지  
귀신은 사람이 지나야 먹을 것이 있어 기뻐하겠지  
참으로 屈原의 혼백과 얘기 했으며  
시를 지어 汨羅의 연못에 넣었습니다.

詩題에서 天末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 끝, 즉 李白의 流配地 夜郎을 가리키는 것이니 너무 멀어 편지를 기러기로 비유하여 좋은 소식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杜甫의 착한 마음이 表示되었다. 杜甫가 이 시를 쓴 것은 乾元 二年 秦州에서이니 天涯에 있을 李白을 그리며 쓴 것이다.<sup>24)</sup>

### 14. 寄李十二白二十韻

昔年有狂客  
號爾謫仙人  
筆落驚風雨  
詩成泣鬼神  
聲名從此大  
汨沒一朝伸  
文彩承殊渥  
流傳必絕倫  
龍舟移棹晚

옛날엔 자칭 四明狂客 賀知章이 있었으니  
그는 첫 눈에 그대를 보고 謫仙人이라 불렀네,  
한번 붓을 들면 빠르기 그지 없었고  
시를 쓰면 귀신도 울어 버렸다오  
이름은 이처럼 높아 졌었고  
침륜은 하루 아침에 일어남이니  
그대 문장의 면면은 특별한 애호를 받았고  
세상에 전하는 작품마다 남 다른데 있었고  
천자의 뱃머리 노를 잠깐 쉬게 했으니

23) 安旗, (1983) 李白縱橫談, 中國, 陝西人民出版社, p. 174.

24) 鈴木虎雄, (1979) 杜甫全詩集 二卷, 東京, 日本圖書, p. 100.

獸錦奪袍新  
白日來深殿  
青雲滿後塵  
乞歸優詔許  
遇我宿心親  
未負幽棲志  
兼前寵辱身  
劇談憐野逸  
嗜酒見天真  
醉舞梁園夜  
行歌泗水春  
才高心不展  
道屈善無隣  
處士彌衡俊  
諸生原憲貧  
稻梁求未足  
惹諂何頻  
五嶺炎蒸地  
三危放逐臣  
幾年遭鵬鳥  
獨泣向麒麟  
蘇武元還漢  
黃公豈事秦  
楚筵辭醴日  
梁獄上書辰  
已用當時法  
誰將此議陳  
老吟秋月下  
病起暮江濱  
莫怪恩波隔  
乘槎與問津

수놓은 고급 비단 옷을 하사 받으셨다.  
대낮엔 멀고 깊은 궁전에 있었고  
그대 곁에는 청운객들로 가득찼네  
천자께서 고향 땅에 가도록 윤허 하셨네  
저가 찾아뵈고 평생의 내 뜻을 친히 보였오  
山林 생활에 마음먹은 그대는  
빨리 은퇴하여 욕됨 없는 몸을 보전코자 했지요  
엄하게 야인으로 은거함은 가엽다고 말했지요  
나는 술 좋아하고 꾸밈없는 그대를 보았오  
더불어 취해 춤 추었던 梁園의 밤  
봄 날 泗水에서 노래 부르며 즐기던 한 때,  
그대 높은 뜻을 퍼지 않아 헤아리지 못해  
道家에의 길을 함께 벗해 드리지 못해 외로웠고  
後漢의 文學者 彌衡처럼 재야의 인사로  
孔子的 門人 原憲과 같은 저의 곤란한 처지  
목숨을 연명할 식량이 부족하니  
염주 때문에 자주 혈 뜯긴 그대  
남녘의 五嶺山脈은 찌는 듯한 더운 곳  
三危山에 내쫓긴 신하와 같은 그대  
몇년이 지나야 봉새가 되어 날으리  
孔子처럼 기린 향해 흘로 눈물 흘리는 당신  
漢의 蘇武가 匈奴에게서 살아 돌아온듯  
黃公이 秦을 섬기듯 永王을 모셨던 당신  
穆生이 楚의 筵席에서 甘酒를 사양하고 떠난 날  
漢의 鄒陽은 獄中에서 편지를 諫하였네  
그때의 법이 적용되어 감옥에 있네  
늬가 그대의 본심을 말해 줄 것인가  
늬어서 가을 달밤에 노래를 하는 처량한 신세  
병든 이 몸은 양자강 언저리를 떠도네  
천자의 은택은 파도를 넘어 당신께 못 가고  
뗏목을 타기위해 나루터를 물어봤다.

총 二百字로, 杜甫의 李白에 대한 詩傳이라고 말 할수 있으니, 李白의 現狀에 관해서도, 그의 生活뿐만 아니라, 그의 心情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서술하고 있다. 이 시는 李·杜 兩人的 관계를 理解하는데, 매우 중요한 資料로써 7段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제 1 단은 1句부터 6句까지(若年……朝伸), 제 2 단은 7句부터 12句까지(文彩……後塵), 제 3 단은 13句부터 20句까지(乞歸……水春), 제 4 단은 21句부터 26句까지(才高……何頻), 제 5 단은 27句부터 30句까지(五嶺……麒麟), 제 6 단은 31句부터 36句까지(蘇武……議陳), 제 7 단은 37句부터 40句까지(老吟……問津)이다.<sup>25</sup>

## 15. 不 見

不見李生久	그대를 오랫동안 못 뵈니
佯狂真可哀	狂人 흉내를 내는 것은 정말 불쌍해서
世人皆欲殺	세상 사람들 모두 자네를 원망해 죽이려 하나

25) 郭沫若, 前掲書, pp. 166~176.

吾意獨憐才	내 홀로 그대의 재능을 애뜻하게 여길뿐
敏捷詩千首	빠른 詩才로 언뜻 千首를 지어냈으니
飄零酒一杯	한잔의 술 잔에 슬픔 있지만 초라해
匡山讀書處	어려서 글 읽던 匡山은 여전하니
頭白好歸來	더 늙기 전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오

千百年 후의 사람들도 杜甫와 꼭 같이 同感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sup>26)</sup>

#### IV. 結 論

위의 李白과 杜甫의 具體的인 作品의 例에서 본 바와 같이, 兩人的 友情은 敦篤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쉽게 差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量的인 차이이다. 그것은 交遊의 범위에서 찾아야겠다.

李白이 그의 詩中에서 交遊한 사람은 총 四百餘名이나 된다.<sup>27)</sup> 그가 杜甫에 대해 쓴 詩는 單四首이다. 그리고 李白의 杜甫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으로 交際하였던 時期와 그 直後에 한정된다. 作品이 散佚되었더라도, 李白처럼 유명한 시인으로부터 言及이 된 作品을 보다 더 잘 保存되는 것이 普通的인 例이다.<sup>28)</sup> 그러니 그렇게 해서 생긴 數的인 차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點은 質的인 面에까지 이르게 된다. '質'이란 것은 友情의 厚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詩人으로서 서로 同等한 位置에서 취급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들 相互 詩歌의 數的인 差異는 있으나 質的인 問題는 同等하다고 하겠다.

杜甫는 一生을 통해서 數千首의 시를 지었겠지만, 現在 전하는 것은 一千四百五十餘首가 된다.<sup>29)</sup> 위에서 서술한 十五首 以外에도 그가 李白을 언급하고 있는 詩가 있으니, 例를 들면 「哭鄭司戶(虔), 蘇少監(源明)」와 같은 詩가 그것이다. 杜甫는 李白과 交遊한 初期 이래로 일관해서, 그에게 共感과 關心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友情의 密度를 論해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李·杜에 관한 각인의 평을 종합해 보면, 元頌의 揚杜斥李를 필두로, 韓愈의 併稱 등이 있었으나, 이는 오직 각자의 비위가 다스린 하나의 고집에 불과함을 경건히 덧붙여 준다.<sup>30)</sup>

총체적으로 요약하자면, 中國文學의 詩歌史上 屈原으로부터 代表되는 浪漫主義 創作方法은 李白이 發揚하였다면, '風', '雅'의 현실주의 창작방법은 杜甫에 의해서 절정기를 이뤘으며, 2년 미만의 交遊期에 作品 및 思想面에서 相互 影響을 주었으리라고 믿을 수 있다.

李白과 杜甫의 生前에 本心에서 우러난 진정어린 友情은, 特히 文人들이 범하기 쉬운 惡習, 즉 상대를 輕視하고 翫하는 것을 없앴기에, 천 백 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萬人的 龜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特히 李白은 交遊 관계에 있어서, 극히 담백한 편인데도, 「沙丘域下寄杜甫」, 「魯郡東石門送杜二甫」와 같은 作品이나, 진지한 편인 杜甫의 「贈李白」, 「冬日有懷李白」, 「春日憶李白」, 「昔遊」, 「遺懷」와 같은 作品은 永遠 不朽의 傑作이다.

26) 胥樹人, 前揭書, p. 271.

27) 郁賢皓, (1983) 李白論叢, 中國, 陝西人民出版社, p. 132.

28) 松浦友久, 前揭書, p. 133.

29) 金啓草, 胡問濤, (1984) 杜甫評傳 中國, 陝西人民出版社, p. 3.

30) 李丙峙, 前揭書, p. 65.

## Summary

### Poetical Association between Li po (李白) and Tu fu (杜甫)

I. B. Kwak

Li po and Tu fu were among the greatest poets not only in the period of Tang Dynasty (唐代) but in the whole history of the Chinese literature. The former was called the Poetic Wizard while the latter was called the Poetic Saint, both of them known as <Li-Tu> (李·杜). These two poets made acquaintance with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in Luo-Yang (洛陽) the second capital of the Tang Dynasty around the late spring in the third year of Tian-bao (天寶) (744 A.D). Li po was 44 years old and Tu fu was 33 at that time.

Both of them were the greatest luminaries of poetry in the 3000-year-long vista of the Chinese literature, even though a good many virtuosos flourished in the stage of poetry during the Tang Dynasty. It may well be called a celestial providence that these two geniuses lived at the same period and came across each other, when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doubted inconvenience in traffic and the supposed wide land in which they wandered as vagabonds.

Inspiringly enough, these two poets not only kept acquaintance with each other, but also remained intimate friends, made trips both together, and shared many interests in common with each other, which led to even richer creativity of their literary activity. Li po was then expelled from the honorable position of a court poet under the patron of King Xuan-zong (玄宗), which honor had been acquired after 17 years of his wandering life. On the other hand, Tu fu, though born of a good family, was living a roaming life for 10 years at that time, with his aim of life centering on the passage of government examination. Most of Tu fu's best poems were written after he made acquaintance with Li po.

The depth of their fellowship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fact that each of them devoted quite a few poems to the other, though only four of Li po's verses relating to Tu fu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time while fifteen of Tu fu's verses relating to Li po can be seen now. Most of these poems were written during the time of their separation and mutual yearning rather than in the presence of each other.

It will be a meaningless doing to try to decide which of these two poets was more advanced in terms of literary value. This paper is to choose and appreciate 19 verses which show their cordial friendship. This kind of study will take on a particular meaning since these poems of theirs had much influence on the Korean literature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me of the Korean songs of nursery.

The friendship seen in their poems will afford a good model to coming generations, for many of the literary masters made light of, or denounce, their competitors in the long history of literature. The significance of their verses will be appreciated to the full when it is kept in mind that Li po and Tu fu thought well of, and cared much for, each other.